

“기부 좀...” 연말정산 간소화 “아직 좀...”

아름다운동행, 국세청 서비스 외면해 개인기부 증대 걸림돌...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불교계 모금기관에서 한발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받았다는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정착 국민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편의제공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은 2011년도 사업 계획과 2010년도 배분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기금모금 목표액을 25억으로 설정하고 ‘비용으로 행복찾기’ 정착, 소액 정기 기부자 2500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을 포함시키고 공제 이월을 허용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기부자들은 손쉽게 자신의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계 대표적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은 아직까지 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동행에 기부한 단체 및 개인들은 여전히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와 국세청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반면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 같은 NPO 단체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기부 앱, 후원자 메시지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굿네이버스가 2010년 10월 출시한 기부 앱은 큰 반향을 불러왔다.

아름다운동행은 현재 100~1,000만 원 등 고액기부자들이 늘어나고, 자발적인

후원자도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기 후원 개인기부자는 8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일회성 기부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부터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모금 전문가들은 창립 2년 만에 모금액이 30여 억원을 넘어서며 이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법인답지 못한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희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대표는 “모금의 성패는 개인기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명한 시스템과 다양한 상품, 기부자와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보혜 굿네이버스 홍보담당가도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모금’과 ‘비용으로 행복찾기’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에서는 나눔 결사의 실현과 저소득 및 실직가정, 1배에 100원을 모금하는 108배 모금 법회,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10억 기금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 주지회의 등을 통한 사업 안내와 교구별 대표 사찰 및 주지 스님 면담을 통한 집중 홍보 등을 계획하

고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4~5월에 전국 사찰별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3월에는 ‘나눔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도 마련할 계획이다.

‘비용으로 행복찾기’는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모금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과 호흡하기 위해 주력하는 사업이다. 108배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들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비용을 통해 행복해지는 불교의 행복관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시

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서울 보신각과 정계전 광장 등에서 진행된다. 동행은 108배를 통한 비용의 가치를 전파하고 매월 1만800원의 정기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아진 성금은 긴급 생계비 가정 지원, 선재의 선물 보내기, 저소득 아동 치료비 지원, 긴급재난 구호 등에 사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금과 배분을 위해 모금위원회, 배분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MB, ‘국가조찬법회’에서 무릎 꿇어

페이스북 부루나, 3일 네티즌들 맹비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3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통성(誦聲)기도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 국가·국민의 안녕과 발전,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성기도를 두고 많은 비판과 논란이 오고갔다.

한 불자는 “현직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목사의 제안으로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굳이 성경을 왼손에 들고 나온 대통령,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과연 그들의 입에서 ‘국민통합’을 어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자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브리핑 내용은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불자가 게재한 청와대 측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심기도의 형태가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그걸 인도하는 목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주도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그대로 간 것이다. 대통령만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인도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불자는 “그럼 묻고 싶다. 불교계에서 대통령을 초청해 ‘국가조찬법회’를 봉행할 때 법회를 진행하는 스님의 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108배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이다. 그리고 법회에 (불교) 경전을 들고 참석할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계기자의 언급에 대해 한 스님은 “순학규 대표님도 무릎 꿇고 기도 잘 하도만. 불교인들의 법회를 봉행하기에 앞서 정치인 불려다 모두 다 같이 3배 꼭 시킵시다”며 조롱했다. K씨는 “기도가 아닌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진정 뉘우치는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행동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 화가 나기 보다는 헛웃음만 난다”고 했다.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연 것은 군사정권부터 시작됐다는 설 명도 있었다.

S씨는 “군사정권이 종교계로부터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이용했다고 알고 있다. 군사정권 때는 불교에서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민정부 이후 불교계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찬법회는 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명예회복하고 뜻 이어가겠다”

맑고향기롭게 새 이사장 현장 스님



“오해다. 해명의 기회도 없었고 잘못 분석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사와 감사 등 임원들의 상처가 크다. 맑고향기롭게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봉사단체 맑고향기롭게는 3월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주지)을 선출했다.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현 스님이 이사장 및 김상사 주지를 사퇴 하면서 불어졌던 사태 수습은 현장 스님의 몫이 됐다. 하지만 현장 스님은 3일 전화인터뷰에서 “별 것 없다”며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했다.

“임원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수많은 억울해 봉사자들(임원진)은 순간 범죄자가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명예 회복하고 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 법정 스님의 뜻과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맑고향기롭게의 대중화와 사회화에 앞장서겠다.” 현장 스님은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이성연 기자

‘맑고 향기롭게’ 사과문으로 회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전원 도의적 책임지고 사퇴표명

맑고향기롭게가 3월 2일 홈페이지에 덕현 스님 사퇴와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맑고향기롭게 임원은 사과문에서 “최근 이사장 덕현 스님을 둘러싸고 야기된 불행한 사태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회원, 봉사자, 법정 스님의 정신에 공감해 살아 가는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에 앞뒤로 정중히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 김상사 실명전에서 열린 긴급 44차 이사회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사회 결과는 이사회 이사 8인 감사 2인 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신임 이사장으로 현장 스님이 선출된 형식적인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이사회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맑고향기롭게는 사과문과 함께 “신임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과 감사,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현장 스님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조속히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앞으로 사업운영에 있어 대의원과 일반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연 기자



동국대, 총장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동국대 김희옥 총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행사로 학생·교직원과 함께 3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실�크로드와 문명’전을 관람했다. 김희옥 총장은 “교수·학생 등 동국인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활성화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의 장을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임원공고 및 입종안내

총 부	정	법상 심곡
원 로	원 장	법 호 서 호
총 무	원 장	법 두 수 암
		법 천 청 화
종 회	의 장	법 수 인 곡
감 찰	원 장	법 관 일 월
교 육	원 장	혜 진 정 관
기 획	실 장	법 응 정 관
총 무	부 장	법 응 정 관
교 육	부 장	청 운
교 육	국 장	민 규
부 산	총 무 원 장	청 운
경 북	총 무 원 장	원 도
경 남	서부총무원장	진 명

■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도를 이루고자 큰 서원을 세우고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을 모집합니다.

■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사진 4장
- 승려증 발급받으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 총본산 :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진원암 [부산 남구 우암 14동 174-32]
총무원 051)638-4088, 직통 010-4540-4088,
총무부장 055)532-4414, 011-507-2837

(사) 대한 불 교 금 강 조 계 종 총 무 원 장 법 천 청 화